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 명 균

-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광역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 안양천 개괄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포구등의 도심지역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된다. 안양천의 길이는 32.2km이며, 주요지천은 상류지역부터 왕곡천, 오전천, 당정천, 산본천, 학의천, 삼성천, 목감천, 개화천, 도림천 등이 있다.

안양천 유역에는 서울시의 7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와 경기도의 7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부천시, 시흥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유역면적은 1991년 건설부의 발표에 의하면 242.4km², [안양천 수질개선개선 대책협의회]의 지목별 토지면적을 기초로한 계산에서는 316.9km²로 계산되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종화 교수에 의하면 279.419km²로 계산되었다.

안양천 유역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건폐지 41.5%, 산림 40.5%, 농경지 및 초지 17.6%, 물 0.4%이다. 또한 산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의왕시(72.1%)이며, 다음으로 과천시(60.7%) 안양시(50.6%)이다. 이들 산림지역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지류의 수질은 수질 등급 1급수에 가까운 곳으로 가재, 버들치, 곳에 따라서는 반딧불이 서식하기도 한다.

건폐지 즉 시가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90.8%), 강서구(83.7%), 동작구(78.8%)의 순서이다.

2.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의 필요성

위에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안양천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유역으로 할 뿐 아니라, 유역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한강의 지천 중에서도 최악의 오염을 보이는 하천이다. 이런 조건에서 안양천을 생태하천-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는 것은 각별한 노력과 유역전체의 수질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안양천은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이룬다. 군포공단안의 안양천은 의왕시와 군포시의 경계가 된다. 구로공단에 인접한 안양천은 금천구와 광명시,

구로구와 광명시, 안양시 하수처리장 하류의 안양천은 안양시, 광명시, 금천구의 경계를 이룬다.

최근 하수처리와 홍수예방을 위주로 관리되던 하천을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직강화된 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때 안양천을 경계로 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공동계획은 필수적일 것이다.

최근 생태하천의 복원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천의 건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역전체를 통합하는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건천화 방지를 위해 상류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고도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전체의 유량과 생태계 연결에 대한 연구와 예산 및 행정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안양천이 다양한 생물의 이동통로가 되어야 한다. 안양천 유역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생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 복원하고 한강과 연계된 다양한 생물종의 이동통로를 확보할 때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안양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고, 광역계획을 수립한다면 [송어가 돌아오는 안양천]에 대한 희망이 현실화 될 것이다.

3.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1) 안양천 전체 유역에 관한 생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안양천 인근의 각 지자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 하천구간의 생태조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안양천을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안양천의 생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양천 유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로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태조사는 안양천의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근 산과 공원들을 포함하는 등 지역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안양천에 송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안양천에 은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안양천 전체에 대한 생태조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양천을 살리는 일은 어느 한 곳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안양천 살리기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시민단체의 공동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참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계획수립이 필수적이다.

광역계획은 무엇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2001년 10월에는 부천시와 시흥시가 참여하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결성한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 협의회] 에서도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 지자체의 연합체인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양천 살리기 광역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기대한다.

3) 광역계획 수립 전이라도 인근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광역계획 수립만을 당면 목표로 할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동안 몇몇 인근 지자체간 진행되었던 안양천 살리기 계획들이 있다면 이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안양시 하수처리장 하류의 철새도래지 조성사업이 될 것이다.

안양시 하수처리장 하류는 하수처리장의 하수 고도처리, 자연형 하천 처리시설, 안양천에서 철새가 가장 많이 날아오는 곳 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인공습지에 많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안양천을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다.

안양시와 광명시, 금천구의 공동 노력으로 안양천에 철새도래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다.

4) 시민과 함께 하는 안양천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되는 말이지만 시민과 동떨어진 안양천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도 없을뿐더러 지속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안양천 살리기는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양천을 오염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시민들을 안양천 살리기의 주역으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시민에게 희망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안양천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노력할 때 안양천의 희망은 있을 것이다.

안양천 살리기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양천 살리기 의제21]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단체 소개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1999년 환경과 공해연구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등 안양천 유역의 21개 민간단체가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보다 견실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광명시 지방의제 추진기구를 참관단체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조직 :

공동대표

(김상준 서울대학교수 -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이종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표)

연락사무국

(안명균 사무국장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체 회의

(참가, 참관단체 회의)

2) 주요 진행사업

- 시민참여를 통한 안양천 유역 수질, 환경지도 제작, 배포
(1999년 안양천 전유역 조사)
- 안양천 살리기 민간단체 네트워크 토론회 (1999년 11월 - 구로구청 회의실)
- 안양천 유역 환경탐사활동 (1999년-현재)
-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1년 6월)
- 안양천 환경.생태 탐사 지도, 지침서 제작 사업
(진행 중 2001년 11월 말 완료 예정)

3) 주요참가단체

◎ 참가단체 :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도림천 살리기 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환경과 공해연구회, 광명경실련, 광명YMCA, 시흥 환경운동연합, 부천 경실련, 안양경실련, 안양 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양시민대학, 군포 환경자치시민회, 군포 YMCA, 군포 환경복지시민기구 등

◎ 참관단체 :

푸른희망 군포21, 광명의제21, 늘푸른안양21,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

